

1월의 기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1. 세계적 복음 전도사로 쓰임 받고 있는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조용기 목사님의 선교사역에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2.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음 속에 되새기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오직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3. 항상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기도를 통해 주님과 나누는 영적인 대화를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4.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큰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5. 예수님의 숨결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6.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보며 회개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진실되게 죄인 된 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 아멘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Lauren Roop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4차원의 영성으로 무장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일체 됨을 입술로 시인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 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리므로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밤, 하도 피곤해서 새벽에 깬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심장이 뛰고 어지럽고 구토가 나고 괴로운지 ‘아, 내가 오늘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눕지도 못하고 일어나서 걸상에 겨우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생각이 내 맘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여,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라고 제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고요하고 잠잠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십자가를 쳐다보아라. 전쟁은 이미 끝났다. 끝난 전쟁을 가지고 네 힘으로 싸우려고 하느냐? 이미 전쟁은 끝났다.”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니까, 성령께서 “들어가서 편안히 눈감고 자라.” 그래서 제가 그 길로 잠자리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마음속에 그렇게 평안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자고 아침에 깨어 일어나니까 온몸이 깨끗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격전장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승리를 우리들에게 갖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승리자로서 전리품을 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December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되돌아보는 해외 성회 하이라이트

2012년 인도 하이데라바드 대성회



인도는 세계 2위의 인구수를 바탕으로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경제의 농업 의존성, 격심한 빈부 격차가 사회 문제로 자리하고 있으며 인종·종교·언어의 다원성과 이질적 문화의 공존, 카스트제도 등으로 인하여 경제발전과 복음화는 침체되어 있다.

인도의 대다수 국민들은 힌두교도이며 이슬람교의 교세 또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어 인도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교 활동을 펼쳐야 했다.

지난 2012년 11월 인도 하이데라바드 대성회는 뉴 인디아 하나님의 교회가 주최하고 DCEM이 주관하여 개최되었다. ‘평화의 축제’라는 주제로 양일간 열린 성회에는 연인원 100만여 명이 참석해 하이데라바드 역사

상 가장 큰 개신교 집회로 기록됐다.

조용기 목사는 4차원의 영성을 통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산해 넣을 것을 강조했다.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 조용기 목사는 “빌립은 예수님을 계산하지 않았다. 광야와 사람들만 계산해 넣었다. 하지만 안드레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나왔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계산해 예수님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며 참석자들에게 예수님을 인생에 계산해 넣을 것을 강조했다.

성회에 참석한 100만여 명 중 수만 명이 그 자리에서 결신했고, 인도 북부지역에서 온 무슬림 1,000여 명의 성도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큰 열매를 맺었다. 그들은 조용기 목사의 설교에 두 손을 높이 들어 ‘아멘’으로 화답했으며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하나

님께 영광을 돌렸다.

성회를 주관한 당시 인도오순절교회협회장 란짓 아브라함 목사는 인도를 지배하고 있는 힌두교인들과 무슬림들이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성회에 큰 관심을 보여 정부의 허가가 나온 것부터 기적이었다고 밝히며, 단순히 기독교인들만의 축제가 아닌 실질적인 인도의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전도 집회였다고 전했다.

지난 2012년 11월 인도 하이데라바드 대성회는 힌두교와 카스트제도가 지배하는 인도 땅에서 사회적인 계급에 갇혀 새로운 꿈을 꾸지 못하는 다수의 빈민층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도전정신을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마귀는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3-24)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1. 말씀을 의지하라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수백 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 가야 하는데 아직 나이가 젊은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그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수 1:5-6)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러자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이 생겨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폭풍우가 불고 쓰나미가 다가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기둥을 붙잡고 있으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와서 기도를 받고 나갈 때, 제가 늘 이 말을 말합니다. “마음을 담대히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고 절망

믿음의 위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마가복음 11장 23~24절)

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2. 간절히 기도하라

오래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은 독사에게 물린 아들을 기도로 살렸습니다. 그 가족이 주일예배를 빠지고 계곡으로 놀러갔다가 9살 된 아들이 독사에 물린 것입니다. 그래서 재빨리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갔는데 이미 독이 퍼져서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구토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해독제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독제가 외국에서 와야 하는데 도착하려면 3일이나 걸리고 해독제를 쓴다 해도 쇼크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서 최후의 수단으로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더 심각해지고 의사는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이 조금만 더 퍼지면 목숨을 잃을 것이고 살아난다 해도 상처 부위가 썩어서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말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으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간절한 마음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일성수 안 한 것을 회개하면서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여 구역 식구들도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사흘째 되던 날, 그 아들이 병상에서 일어나 앉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에는 이처럼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크고 은밀한 일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 우리가 기도해야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눅 11:9-10)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3. 믿음을 선포하라

여러분, 의심과 불안과 공포와 싸울 때, 입술의 고백이 강하고 담대 해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믿습니다.”로 나아갔다가 넘어지는 것은 마귀와 입씨름에서 패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말로써 항복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지고 마는 것입니다. 입심이 약하면 밤낮 마귀에게 잡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전쟁에 입심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서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입술의 말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시며 그 입술의 말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창조적인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창조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복 받았다. 나는 형통하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의 말은 인간의 말로써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말을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말에는 창조적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원한다면 먼저 말부터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 주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돌보아 주실까?” 그런 의심과 두려움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0년을 보내고

‘새로운 도약 희망의 2021년’을 향해 ...

한해가 저물어 간다. 희망과 소망의 꿈을 안고 시작한 2020년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역사상 세계 재난 사태를 이루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위기를 말하는 시대가 되었고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생활에 전반적으로 가져온 변화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 영향을 끼쳤다. 서로가 방문할 수 없고 만나는 일들이 어려워졌다.

그동안 준비해오던 총재 조용기목사님의 2020년 해외성회 예정 국가인 싱가포르, 미국, 일본, 대만의 성회도 잠정적 연기를 거듭하게 되면서 선교 사역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게 되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에, 교회는 문을 닫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등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슴에 담고만 있지 않고 온 누리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눌린 마음과 몸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총재 조용기목사님의 긍정의 신앙인인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넘치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의 세상 가운데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년에는 DCEM의 선교사역이 영적 지도력을 회복해 이 세계를 위한 밝은 등불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한다.

2021년의 마무리 되는 내년 12월에는 떠오르는 단어가 ‘복음’이 되기를 소망한다.

Merry Christmas
복된 성탄을 맞이하여 2020년 한 해에도 저희 DCEM을 위하여 아낌없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에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總裁 조용기 목사 趙錫基
事務總長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 S. SUGIMASA